

地域住民의 自然環境態度 水準이 休養林 開發 知覺에 미치는 影響¹

宋 亨 燮²

Residents' Attitudes toward Natural Environment and Perceptions on Recreation Forest Development¹

Hyung Sop Song²

요 약

본 연구는 휴양림 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의 영향 지각이 그들의 자연환경태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휴양림 개발 이용 관리에 따른 지역주민간 이해 충돌 소지의 파악 방법으로 자연환경태도 정보 자료가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기존 연구 문헌을 참조하여 30개 지역 주민의 개발 영향 지각 및 의견 항목을 선정하였다. 자연환경태도 측정 조사는 NEP 척도 항목을 이용하였다. 1995년 10월, 2개 휴양림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하여 총 204매의 설문 자료가 수집되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주민은 휴양림 개발에 대해 낮은 경제적 효과와 부정적 환경 영향을 지각하고 있었다. 자연환경태도 수준은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연령과 학력수준 변수에서 높은 유의적 차이가 인정되었다. 지역주민의 자연환경태도 수준은 휴양림 개발 지각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자연환경태도는 휴양림 관리의 이해 충돌 해결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local residents' nature environment attitudes to recreation forest development impact perceptions and to examine application possibility of nature environment attitude to resolution information of recreation forest management conflicts. 30 items of residents' perceptions and opinions were designed from previous tourism impact studies. The new environmental paradigm(NEP) was used to measure local residents' nature environment attitudes. In October 1995, 204 questionnaires were obtained from interview survey in local residents' villages near two recreation forests. Generally most local residents perceived low economic effects and negative environment impacts for recreation forest development. Nature environment attitude levels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due to socioeconomic variables of local residents, specially high in age, education level and influenced their perceptions toward recreation forest development impacts.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nature environment attitudes could be provided a useful referential framework in resolution of recreation forest management conflicts.

Key word : recreation forest development impact perceptions, Nature environment attitudes

¹ 接受 1999年 1月 20日 Received on January 20, 1999.

²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Dept. of Forest Resour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aejon 305-764, Korea.

서 론

국민적 야외 휴양 욕구의 충족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대, 산주와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현재 67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조성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제4차 산림 기본 계획의 종료년도인 2007년까지 전국에 걸쳐 115개소 조성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도 개소 수 증가에 따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명산 등 4개소 휴양림 조성 초기인 1989년의 4만명 수준에서 60개소가 조성된 1997년말에는 260만명에 이르렀고 계획 목표인 115개소 조성 완료 이후인 2010년에는 670만명이 휴양림을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산림청, 1998).

이러한 휴양림의 양적 개발 공급과 함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개발 전·후의 사회 영향 평가 수행이다. 이의 한 방법인 지역 주민의 지각 연구는 관광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지역경제의 기여 효과와 사회 문화 환경 영향 지각(Camasso and Moore, 1985; Liu and Var, 1986; Gramling and Freudenburg, 1992; Lankford and Howard, 1994; Kang 등, 1996; Wall, 1996; Lindberg and Johnson, 1997), 이용 시즌의 영향(Oppermann, 1996),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지각 차이(Belisle and Hoy, 1980; Brougham and Butler, 1981; Pizam, 1978; Murphy, 1981), 관광 관련 종사자와 비종사자간의 지각 차이(King 등, 1993; Haralambopoulos and Pizam, 1996) 등 관련 연구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현행 휴양림의 경우에서도 개발 전 사회 영향 평가와 함께 개발 이용 후 특히 이용에 따른 지역 영향 평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현행 휴양림 조성 목적의 하나인 산주와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부응 정책뿐만 아니라 이후 예상될 수 있는 지역 주민과의 여러 이해 충돌 소지 예방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더욱이 환경에 대한 공공 관심 증대에 따라 휴양림 개발 이용에 대한 주민 기대도 소득 향상이나 생활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문화 및 자연 자원 보호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어 이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국내 관련 연구에서 밝힌 관광형 산촌 정주권 주민의 경우 향후 지역 발전 방향을 관광지나 복합영농단지로 발전되기를 희망(강병수 등, 1998), 현 조성 운영 중인 휴양림에 대한 지역

주민의 경제적, 생활 환경적 개선에 대한 높은 기대성(최종천 등, 1998), 그리고 경제적 소득보다는 오히려 지역 환경 자원 보호를 중시하고 있다는(송형섭 등, 1998)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금후 휴양림 계획 및 이용자와 지역 주민간 혹은 지역 주민내 이해 충돌 발생 증가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환경 영향에 대한 지각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연환경태도는 이해 집단이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Heberlein, 1981; Van Liere 등, 1981; Newell 등, 1997) 자연환경태도가 이해 충돌 해결에 유용한 정보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British Columbia 지역내 해양동물 포획과 보호에 대한 환경 보호주의자와 일반 공공 시민, 그리고 상업적 수산업자들의 이해 충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태도 수준에 기인된다고 밝힌 Edgell 등(1989)의 보고와 국유림 지역내 산림 자연 이용에 대한 기존 주민과 도시에서 이주한 주민간의 이해 충돌을 두 집단간의 자연환경태도 비교를 통하여 밝히고자 연구한 Fortmann 등(1990)은 자연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각 이해 집단별 충돌 해결에 자연환경태도가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기존 연구를 토대로 국내 휴양림 개발 이용에 따른 지역 주민의 영향 지각이 이들의 자연환경태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금후 국내 휴양림 개발 운영 관리에 따른 이해 집단별 충돌 소지의 파악 수단으로 자연환경태도 도구가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지

본 연구는 대전시 서구 장안동 소재 장태산과 충북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에 위치한 장용산 휴양림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휴양림 지역은 휴양림 조성 초기인 1990년대 초에 조성되었고 대전시와 인접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관계로 휴양 방문 이용이 활발한 지역이다. 연구 대상지 구획은 두 지역 공히 일반 국도에서 휴양림 입구까지의 일방 통행 도로 구간의 접근로에 마을이 산재되어 있어 장태산의 경우 휴양림

입구에서 일반 국도간 5km, 장용산의 경우 6km 구간 지역 마을로 설정하였다.

2. 조사 및 분석 방법

지역 주민의 휴양림 개발 영향 지각 및 의견에 대한 설문 항목은 기존 관련 연구(Liu and Var, 1986; Gramling and Freundenburg, 1992; Lankford and Howard, 1994)에서 밝힌 항목과 관련 학생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하여 영향 지각 20개 항목, 의견 항목 10개 항목으로 구성 이용하였다. 자연환경태도 설문 항목의 구성은 Dunlap and Van Liere(1978)가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통하여 개발한 12개의 NEP(New Environmental Paradigm)구성 항목을 이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연환경에 대한 신념, 태도 측정 도구로서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Albrecht 등, 1982; Edgell 등, 1989). 영향지각, 의견 항목, NEP 구성 항목 공히 매우 그렇다(동의한다)를 5점, 매우 그렇지 않다(동의하지 않는다)를 1점으로 하는 5-point Likert scale을 사용하였다. 12개 NEP 항목 중 8개 항목은 긍정적 동의를 구하는 표현으로, 나머지 4개 항목(표 1. E3, E4, E8, E11)은 거부하는 표현으로 설명되어 이들 4개 항목은 Edgell(1989)이 제시한 역 산정 방식을 사용하였다. 즉 point가 높으면 NEP 동의 정도가 높도록 구성하였다. 조사는 1995년 10월 구획 지역내 거주 주민에 대한 직접 방문 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조사자는 남녀 학생 각 1인씩 2인 1조로 편성하였으며 응답자는 가구당 1

인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장태산 휴양림 지역 104명, 장용산 지역 100명으로 전체 204명의 응답 자료가 수집되어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연환경태도 수준 구분은 응답한 12개 구성 항목 point를 모두 합친 전체 NEP 점수 값을 이용하였다. NEP 척도는 일정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수준 비교 척도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지역 주민에 대한 자연환경태도 수준 상, 중, 하위집단 구분은 이들 점수 값에 대한 분포 빈도와 평균을 기준하여 상, 하 25% 정도에 분포하고 있는 그룹을 각각 상, 하위집단으로 나머지 중간 분포 그룹을 중위집단으로 구분 이용하였다. 이후 이들 각 집단간 휴양림 개발 영향 지각 및 의견 항목에 대한 상대적 지각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휴양림 지역주민의 자연환경태도 분석

가. 지역주민의 NEP 점수 분포

휴양림 지역 주민의 NEP 점수 분포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 평균 NEP 점수 중 가장 높은 값은 NEP 12개 항목에 대해 5 point scale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60점이 되며 가장 낮은 점수 값은 12점이 되도록 하였다. 분석된 지역 주민의 자연환경태도 수준은 평균 45.53으로 나타났다.

나. 사회경제적 변수별 NEP 차이 분석

한편 여러 연구에서 자연환경태도 수준은 사회 경제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들 차이는 자

표 1. 휴양림 지역주민의 NEP 점수 분포

NEP 항목	Mean	S.D
E 1. 자연환경은 파괴되기가 매우 쉽다.	4.05	1.00
E 2. 인간의 자연파괴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20	0.90
E 3. 인간은 필요에 따라 자연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3.06	1.23
E 4.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3.43	1.28
E 5. 인구는 지구의 수용한계에 와 있다.	3.69	0.94
E 6. 지구는 한정된 공간과 자원을 가진 우주선과 같다.	3.83	0.92
E 7. 산업화된 현사회는 더 이상 확대될 수 없는 성장 한계에 와 있다.	3.16	1.04
E 8. 인간은 필요에 따라 재창조할 수 있으므로 자연환경에 순응할 필요가 없다.	4.18	1.02
E 9. 인간은 자연환경을 심하게 해치고 있다.	4.18	0.89
E10.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4.49	0.70
E11. 동식물들은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 존재한다.	3.20	1.19
E12. 건전한 경제 유지를 위해서는 산업성장이 통제되는 안정적 경제 체제로 발전해야만 한다.	4.07	0.94
Total	45.53	5.88

연 자원의 개발이나 이용상의 이해 충돌, 개발 이용에 따른 영향 지각 등에 영향을 주어 자연환경태도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유용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Herberlein, 1981; Van Liere 등, 1981; Edgell 등, 1989; Fortmann 등, 1990; Newell 등, 1997). 본 연구에서는 휴양림 지역 주민의 주요 사회 경제적 변수에 따라 자연환경태도 수준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NEP 12개 전체 항목에 대한 평균 값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연환경태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의 경우에는 1% 수준에서, 교육 수준의 경우에는 0.1%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Herberlein(1981)과 Newell 등(1997)이 밝힌 연령층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연환경태도 수준이 높다는 연구 보고와 상응하는 결과를 보였다. 18세 이전의 유년기 성장지의 경우 도시 성장의 응답자가 농산촌 성장 응답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 지역의 교육 기회 영향이 아닌가 본다. 휴양객을 상대로 소득을 얻고 있는 관련 종사자와 비종사자들간에는 종사자들이 비종사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자연환경태도 수준을 보였으며 10%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인정되었다. 일반적으로 방문객 상대 소득 종사자들이 비종사자들

표 2.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변수별 NEP 수준 차이

변 수	N	Mean	F-value
연령	18 - 29	37	4.864**
	30 - 39	42	
	40 - 49	67	
	50이상	58	
	계	204	
교육 수준	중졸이하	84	14.61***
	고졸	94	
	대재이상	26	
	계	204	
유년기 성장지	농산촌	171	2.779*
	도시	33	
	계	204	
휴양객 종사자 상대업	종사자	24	2.890*
	비종사자	180	
	계	204	

유의수준 : * 10%, ** 1%, *** 0.1%

비하여 개발에 대한 경제적 영향 지각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King 등, 1993; Haralambopoulos and Pizam, 1996)에 비추어 본 결과는 금후 휴양림 개발 이용에 대한 이들 지역 주민간 이해 충돌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타 성별, 소득, 거주기간 변수간에도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유의적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2. 자연환경태도 수준별 개발 영향 지각

휴양림 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영향 지각이 이들의 자연환경태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 주민의 자연환경태도 수준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NEP 척도는 일정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수준의 비교 척도이므로 12개 NEP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값과 각 점수 값에 대한 분포 빈도수를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즉, 자연 환경태도 수준별 상, 하위 각 25% 정도를 상위집단, 하위집단으로 하고 나머지 50% 정도를 중위집단으로 하는 3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12개 NEP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값 중 상위집단은 50점 이상, 중위집단은 42 - 49점, 하위집단은 41점 이하 점수를 갖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후 조사된 20개 휴양림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영향 지각 항목에 대해 3개 자연환경태도 수준 집단간 차이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각 구분 집단 공히 휴양림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 영향 지각은 '고용확대', '소득 향상' 등과 같은 경제적 기여 효과는 낮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 '경관 훼손', '소음공해', '쓰레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은 부정적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환경태도 수준 구분 집단별 휴양림 개발 영향 지각 차이를 Duncan(0.05)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유의적 차이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자연환경태도 수준의 상위집단이 하위집단에 비하여 휴양림 개발에 따른 소득 및 생활 수준 기여 등의 경제적 기여 효과와 교통 통신 개선의 사회 문화 기여 효과, 그리고 경관 훼손 등의 환경 영향 공히 낮은 지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본 결과에서 상위집단의 환경 영향 지각이 낮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상위집단의 전체 항목에 대한 낮은 평가 경향과 휴양객들과의 상대적으로 낮은

표 3. 지역 주민의 NEP 수준별 휴양림 개발 영향 지각

	Means			
	Group A	Group B	Group C	F-value
주민들의 고용 확대가 이루어졌다.	1.6	2.0	2.3	6.03**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졌다.	1.6	2.1	2.4	5.51**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1.6	2.0	2.5	8.74***
지역산업에 변화가 일어났다.	1.9	2.3	2.9	6.99***
물가가 올랐다.	2.1	2.6	2.8	4.02*
주민들의 과소비가 많아 졌다.	2.6	2.7	2.7	0.05
주민의 휴양기회가 증가되었다.	3.0	2.7	2.8	1.26
주민의 놀이문화활동이 많아졌다.	2.8	2.6	2.7	0.87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다.	3.1	2.8	3.1	2.03
교통 및 통신이 편리해졌다.	2.3	2.3	2.9	4.60*
물건사기가 쉬워졌다.	2.1	2.2	2.5	2.06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	2.5	3.0	2.9	3.59*
주민의 도덕심이 떨어졌다.	2.5	2.8	2.8	1.15
범죄율이 증가되었다.	2.4	2.4	2.6	0.65
주택 및 도로 구조가 개선되었다.	3.0	2.9	3.1	0.89
지역 이미지가 좋아졌다.	3.4	3.0	3.0	4.64*
주변의 경관 훼손이 심해 졌다.	3.1	3.6	3.7	4.75**
소음 공해가 증가되었다.	3.5	4.0	4.1	4.72*
쓰레기 및 수질 오염이 심해 졌다.	3.6	4.1	4.2	3.59*
교통 혼잡이 심해 졌다.	4.3	4.3	4.3	0.05

* Group A : 상(50이상, N=51), Group B : 중(42 - 49, N=105), Group C : 하(41이하, N=48), 유의수준 : * 5%, ** 1%, *** 0.1%

접촉기회 등의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휴양림 개발 의견 태도에서 상위집단의 환경 보호 중시 태도, 낮은 휴양객 접촉 기회 및 지역 활동 참여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표 4). 자연환경태도 수준 집단별 유의적 차이는 경제 및 환경 영향 항목에서 현저하게 발견되었는데 '고용확대', '지역 투자 확대', '소득 및 생활 수준 향상', '지역 산업 변화'의 경제적 기여 효과 항목, '경관 훼손' 항목에서 0.1 - 1% 수준, 그리고 '물가 상승', '교통 및 통신 편리', '자녀 교육 불안', '지역 이미지 제고', '소음 증가', '쓰레기 및 수질 오염 증가' 항목에서는 각각 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인정되었다.

3. 자연환경태도 수준별 개발 의견

휴양림 개발 의견 항목 중 자연환경태도 수준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의 현저한 차이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혜택의 기대와 환경 보호 중시 의견 항목에서 발견되었는데 상위집단이 하위집단에 비하여 환경적 측면을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었다. 즉, 자연환경태도 수준의 상위집단은 하위집단에 비하여 휴양객으로부터의 경

제 소득보다는 환경적 보호 측면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 경제 소득을 얻고자 하는 기대 정도는 자연환경태도의 하위집단이 높았으며 상위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 수준은 각각 0.1%로 고도의 유의적 차이가 인정되었다. 앞서의 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연환경태도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표 2)와 급후 지역 주민의 교육 기회 확대 추세에 따라 지역 주민의 환경 중시 성향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 결과는 이의 정도 파악 수단으로 자연환경태도 척도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태도의 상위집단은 하위집단에 비하여 휴양림 홍보 의사를 높게 가진 반면 휴양객 친질 의사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휴양객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 시각을 높게 갖고 있었다. 상위집단은 하위집단에 비하여 휴양객 접촉 기회와 지역활동 참여 기회가 적었으며 이들 항목에 대한 집단간 유의 차이는 0.1 - 5% 수준에서 인정되었다. 휴양림 조성에 따른 경관 훼손 가능성과 오물 투기에 대한 벌금 부과에 대해서는 각 집단별 높은 긍정적 의견을

표 4. 지역 주민의 NEP 수준별 휴양림 개발 의견

	Means			
	Group A	Group B	Group C	F-value
지역내 휴양림을 널리 홍보할 생각이다.	3.4	2.8	3.3	5.92***
휴양객들에게 친절할 편이다.	3.2	3.3	3.7	3.61*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경제 소득을 얻고 싶다.	1.6	2.8	2.9	17.63***
휴양객들로부터의 경제 소득이 환경보호 측면보다 중요하다.	1.4	2.5	2.6	12.25***
휴양객들은 대부분 건전하지 못한 활동을 한다.	2.3	2.9	2.9	6.48**
휴양림 조성은 주변 환경을 훼손시킨다.	3.2	3.4	3.4	0.68
오물 투기 휴양객들에게는 벌금 등 제재가 필요하다.	4.2	4.3	4.2	0.39
지역단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7	2.7	3.4	6.42**
휴양객들을 자주 접하고 있다.	2.4	2.9	3.1	4.06*
휴양객들은 대부분 예의가 없다.	2.3	3.1	2.8	10.50***

* Group A : 상(50이상, N=51), Group B : 중(42 - 49, N=105), Group C : 하(41이하, N=48)
 유의수준 : * 5%, ** 1%, *** 0.1%

보이고 있었으며 이들 항목에 대한 자연환경태도 수준 집단별 유의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 및 제언

환경 문제에 대한 공공의 인식과 기대가 증대됨에 따라 자연자원의 적절한 개발 이용 관리와 이에 대한 각 이해 집단별 의견 충돌 해결 방안 연구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야외 휴양 기회 공급 확대와 산주와 지역주민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기여의 주요 목표를 갖고 전국에 걸쳐 조성 운영 중에 있는 휴양림의 경우에도 이들 문제 발생 소지에서 예외될 수 없으며 이들 휴양 자원의 안정적 개발 이용을 위한 다각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자연환경태도 도구는 각 이해 집단별 의견 충돌 해결의 정보 수단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연환경태도 수준은 환경적 신념으로 표현되며 이의 높고 낮음은 자연 자원의 개발 이용 등의 영향 지각 차이에 투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휴양림 개발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 지각이 자연환경태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휴양림 개발 이용에 대한 지역 주민간 이해 충돌 소지 평가 수단으로 자연환경태도 정보 자료가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였다. 자료는 휴양림 개발 영향 지각 및 의견 항목 자료와 NEP 척도를 통한 자연환경태도의 설문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은 휴양림 지역주민과 휴양림 방문객의 자연환경태도 수준

비교, 지역주민의 주요 사회경제적 변수별 자연환경태도 수준 차이, 자연환경태도 수준별 지역주민의 휴양림 개발 영향 지각 차이를 파악하고 자연환경태도 도구가 이해 충돌 해결의 정보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지역 주민의 주요 사회 경제적 변수별 자연환경태도 수준의 유의적 차이는 연령과 학력 수준의 변수에서 유의성이 높게 인정되었으며 기존의 연구(Herberlein, 1981; Newell 등, 1997)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연환경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휴양림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 경향은 고용확대, 소득 향상과 같은 경제적 기여 효과에 대해서는 낮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 경관훼손, 소음공해 등 부정적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높게 지각하고 있어 현행 휴양림 개발 조성은 지역주민에게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NEP항목의 전체 평균값과 분포 빈도수를 고려하여 자연환경태도 수준을 상, 중,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휴양림 개발 영향 정도를 비교한 결과 자연환경태도 수준 집단별 유의적 차이는 사회 문화 영향 항목보다는 경제적 기여 항목과 환경적 영향 항목에서 뚜렷하게 발견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자연환경태도 수준의 상위집단이 하위집단에 비하여 낮은 영향 지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양객으로부터의 경제적 소득 선호 의사는 자연환경태도 수준의 하위집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상위집단의 경우 경제 소득보다는 환경 보

호 측면을 보다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 항목에 대한 자연환경태도 수준 집단별 차이는 공히 0.1% 이하의 고도의 유의적 차이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휴양객 상대 종사자와 비종사자간 등 사회 경제적 변수간 자연환경태도 수준의 유의적 차이 발견과 휴양림 개발 영향 지각에 대한 자연환경태도 수준별 유의적 차이 입증은 금후 자연환경태도 척도가 휴양림 개발 영향 지각 분석과 이를 통한 지역주민의 이해 충돌 소지의 정보 파악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환경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휴양림개발에 대한 경제적 기여 기대에도 불구하고 환경 영향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부정적 태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 영향 평가 수단의 한 방법으로 이의 활용 가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소수 휴양림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영향 지각 설문 또한 휴양림 개발후에 조사가 이루어진 제한점이 있으므로 자연환경태도 척도가 지역 주민의 이해 충돌 소지의 정보 자료 수단으로 범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 조사와 개발 전·후의 층화 분류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인 용 문 헌

1. 강병수·김종호·오덕성. 1998. 주민요구 충족에 기초한 정주권 개발 방향 : 관광형 산촌정주권을 중심으로. 한국산림경제학회 산림경제연구 6(1) : 60-74
2. 산림청. 1998. 자연휴양림제도개선보고서 : 298pp
3. 송형섭·김세천·전경수. 1998. 휴양림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태도분석. 한국임학회지 87(3) : 415-421
4. 최종천·최종운·주진순. 1998.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 개발을 통한 산촌 소득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경제학회 산림경제연구 6(1) : 1-19.
5. Albrecht, D., G. Bultana, E. Hoiberg. and P. Nowark. 1982. The new environmental paradigm scale. J. of Environmental Education 13 : 39-43.
6. Belisle, F.J. and D. Hoy. 1980. The perceived impact of tourism by residents : A case study in santa marta, colombia. Annals of Tourism Research 7(1) : 83-101.
7. Brougham, J.E. and R.W. Butler. 1981. A segmentation analysis of resident attitudes to social impact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7(4) : 569-590.
8. Camasso, J.J. and D.E. Moore. 1985. Rurality and the residentiality social welfare response. Rural Sociology 50(3) : 397-408.
9. Dunlap, R.E. and K.D. Van Liere. 1978. The new environmental paradigm. J. of Environmental Education 9(4) : 11-19.
10. Edgell, M.C.R. and D.E. Nowell. 1989. The new environmental paradigm scale : Wildlife and environmental beliefs in British Columbia.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Vol.2 : 285-296.
11. Fortmann, L. and J. Kusel. 1990. New voices, old belief : Forest environmentalism among new and long-standing rural residents. Rural Sociology 55(2) : 214-232.
12. Gramling, R. and W.R. Freudenburg. 1992. Opportunity-threat, development, and adaptation : Toward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Rural Sociology 57(2) : 216-234.
13. Haralambopoulos, N. and A. Pizam. 1996. Perceived impacts of tourism : The case of Samo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3) : 503-526.
14. Herberlein, T.A. 1981. Environmental attitudes. Zeitschrift Fur Umweltpolitik 2 : 241-270.
15. Kang, Y.S., P.T. Long and R.R. Perdue. 1996. Resident attitudes toward legal gambl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1) : 71-85.
16. King, B., A. Pizam and A. Milman. 1993. The social impacts of tourism on Nadi, Fiji as perceived by its residen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0 : 650-665.
17. Lankford, S.V. and D. Howard. 1994. Developing a tourism impact attitude sca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 : 121-139.
18. Lindberg, K. and R.L. Johnson. 1997. Mo-

- deling resident attitudes towar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2) : 402-424.
20. Liu, J.C. and T. Var. 1986. Resident attitudes toward tourism impacts in Hawaii. *Annals of Tourism Research* 13 : 193-214.
 21. Murphy, P.E. 1981. Community attitude to tourism : A comparative analysis. *Tourism Management* 2(3) : 189-195.
 22. Newell, S.J. and C.L. Green. 1997. Racial differences in consumer environmental concern. *The J. of Consumer Affairs* Vol.31(1) : 53-69.
 23. Oppermann, M. 1996. Rural tourism in Southern Germany.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1) : 86-102.
 24. Pizam, A. 1978. Tourism's Impacts : The social cost to the destination community as perceived by its residen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16(4) : 8-12.
 25. Van Liere. K.D. and R.E. Dunlap. 1981. Environmental concern ; does it make difference, how it's measured?. *Environment and Behavior* Vol.13(6) : 651-676.
 26. Wall, G. 1996. Perspectives on tourism in selected balinese villag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1) : 123-137.